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研究

손 유 경 *

<目次>

- | | |
|------------------|-------------|
| I. 緒論 | III. 記夢詩 分類 |
| II. 記夢詩의 淵源 및 定義 | IV. 結論 |

<국문 초록>

1506년 중종반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16C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이들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은 결국 기묘사화로 많은 사림과 문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을 己卯士林이라고 한다.

그동안 16세기 사림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이 시기 載道文學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향은 이 시기의 사림 문학 전반을 제도 문학으로 아울러 내는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개별적 분석을 통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비하였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이 시기 사림 문인들에 대한 개별적 작품 분석을 통해 그들의 의식 세계를 탐토해 보고자 하는 큰 연구 목적의 한 작업으로서 16세기 기묘사림들의 記夢詩를 분석한 것이다.

‘記夢詩의 淵源 및 定義’에서는 기몽시의 연원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기몽시의 개념을 추출하여 정리하였다. ‘記夢詩 分類’에서는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를 出仕에의 의지 표출·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至親에 대한 그리움·절

* 성신여자대학교 강사 / curator98@hanmail.net

망적 상황에서의 신세 한탄의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記夢詩의 분석은 기묘사화 후 개인 작품의 산일과 그들의 짧은 생애로 인하여 그들의 의식의 내면을 고찰할 방법이 적은 당시 사림 문인들이 유배기의 심리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들의 記夢詩가 16C 후반의 다양한 형태의 기몽시가 창작되는 데에 일정정도의 기여를 하였음을 밝히는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본고는 시작품의 분석 대상을 일부 기묘사림의 작품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記夢詩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식세계의 일단면을 엿보는 데에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이 시기 개별 작가들의 시작품 분석 과정에서 더 많은 기몽시 작품들을 보완하여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16C, 기몽시(記夢詩), 기묘사림(己卯士林), 사림(士林) 문학, 꿈

I. 緒論

1506년 중종반정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16C는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 기존의 훈구 세력들이 당대 현실을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그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에 반해 사림파들은 당대 현실을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태평성대로 가기 위한 정치적 노력-堯舜 시대를 이상향으로 삼는 至治主義-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입장은 결국 숭한 사안들에서 끊임없는 충돌을 빚었으며, 그러한 갈등은 己卯士禍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를 야기하여 많은 사림파 문인들이 희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때에 趙光祖(1482~1519)는 전라도綾州로 귀양 가서 사사되고, 金淨(1486~1521)·奇遵(1492~1521)·韓忠(1486~1521)·金滉(1482~1520) 등도 귀양 갔다가 사형 또는 자결하였다. 金絳(1488~1534) 등 수십 명도

유배되었고, 이들을 두둔한 金安國(1478~1543)·金正國(1485~1541) 등 여러 명의 문인들은 파직되었다.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을 己卯士林이라고 하며, 이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己卯名賢이라고 하기도 한다.

본고는 16C 기묘사림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려는 연구 목적 아래 그 한 과정으로 그들의 記夢詩를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 16세기 사림문학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이 시기 載道文學觀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향은 이 시기의 사림 문학 전반을 載道文學으로 아울러 내는 거시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개별적 분석을 통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비하였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시기 사림 문인들에 대한 개별적 작품 분석을 통해 그들의 의식 세계를 탐토했고 보고자 하는 큰 연구 목적의 한 작업으로서 16세기 기묘사림들의 기묘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당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희생 당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았던 사림과 문인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도 免責할 수 있는 시적 기제로 꿈·이성의 영역 밖의 장치·을 사용하였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당시 사림과 문인들의 의식 底面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본고는 시작품의 분석 대상을 일부 기묘사림의 작품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의 원인으로는 우선, 기묘제현의 시문은 기묘사화 직후 가족에 의해 불태워지고 산일되어 片言隻字도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¹⁾이었기에 현전하는 시문이 많지 않기 때문과 기묘시라는 형식의 시가 모든 문인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記夢詩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기묘시를 분석하는 것이 그들의 의식세계의 일단면을 엿보기에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

1) 우응순,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31집, 한국한문학회, 2002. p.125.

였으며, 추후 이 시기 개별 작가들의 시작품 분석 과정에서 더 많은 기몽시 작품들을 보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II. 記夢詩의 淵源 및 定義

‘꿈’에 관한 언급은 『周禮』, 「春官·占夢」에

꿈을 점치는 사람[占夢]은 사계절을 관장하여, 하늘과 땅의 모이는 지점을 살피고 음양의 기운을 분별하여 해·달·별자리를 가지고 여섯가지 꿈[六夢]의吉凶을 점친다. (六夢은) 正夢·噩夢·思夢·寤夢·喜夢·懼夢이다.²⁾

라고 한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漢의 鄭玄은 풀이하기를

正夢은 아무 감동이 없이 편안하게 저절로 꾸는 꿈
噩夢은 놀라고 당황하여 꾸는 꿈
思夢은 깨어있을 때 생각했던 것을 꾸는 꿈
寤夢은 깨어있을 때 말했던 것을 꾸는 꿈
喜夢은 기뻐서 꾸는 꿈
懼夢은 두려워서 꾸는 꿈³⁾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꿈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 힘에 의해 꾸어지는 것-예지몽과 같은 경우-과 깨어있을 때의 강한 인상(말했던 것이나 생각했던 것)이 꿈속에서 형상화되어 보여지는 것 등으로 나뉘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周禮注疏』 권25, 「春官·占夢」, 『十三經注疏 整理本』 8, 北京大學出版社, pp.767-772. “占夢掌其歲時, 觀天地之會, 辨陰陽之氣, 以日月星辰占六夢之吉凶. 一曰正夢, 二曰噩夢, 三曰思夢, 四曰寤夢, 五曰喜夢, 六曰懼夢.”
3) 위의 책, p.769. 鄭玄注 참조. “正夢: 無所感動, 平安自夢, 噩夢: 杜子春云, ‘噩堂爲驚鄂之鄂, 謂驚愕而夢.’, 思夢: 覺時所思念之而夢, 寤夢: 覺時道之而夢, 喜夢: 喜悅而夢, 懼夢: 恐懼而夢.”

중국 기몽시의 문학적 출현은 그 연원이 오래되었는데, 『詩經』에서부터 이미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詩經』, 「小雅·鴻鴈之什」, 「無羊」시 마지막 장은 꿈의 조짐을 읊은 시이다.

牧人乃夢	牧人이 꿈을 꾸니
衆維魚矣	사람이 물고기가 되며
旄維旛矣	旄가 旛가 되도다
大人占之	太人이 점을 쳐보니
衆維魚矣	사람이 물고기가 됨은
實維豐年	실로 풍년들 조짐이요
旄維旛矣	旄가 旛가 됨은
室家濙濙	室가가 많아질 조짐이로다

牧人이 꿈에 많은 물고기를 보자, 太人이 꿈을 점쳐서 말하기를 ‘여러 물고기가 모여 드는 꿈은, 그 해에 풍년이 들고, 사람들이 번창할 것을 상징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인들은 신비한 꿈에 대해서 모두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점치는 사람의 해몽을 통해서 비로소 마음의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詩經』 가운데의 기몽시는 周代 사회의 꿈에 대한 호기심과 당시에 꿈에 대한 견해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또한 역대 기몽시의 효시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꿈’이라는 소재를 성공적으로 시 속에 융화시킴으로써 몽환적인 색채를 시가의 영역에 포함시킨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⁴⁾

이 외에도 漢代의 古詩十九首 가운데 「凜凜歲雲暮」의 시는 전형적인 기몽시라고 볼 수 있으며, 魏晉六朝 시대에는 曹植의 「離別詩」와 陶潛의 「飲酒詩」 속에서 기몽시의 일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唐·宋代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기몽시가 창작되었으니, 唐代 시인으로는 白居易 21수,

4) 劉奇慧, 「陸游紀夢詩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03. p.8. 번역하여 재인용.

元稹 13수, 杜甫 4수가 대표적이며, 宋代의 시인으로는 梅堯臣 29수, 蘇軾 20수, 楊萬里 12수, 黃庭堅 10수, 王安石 9수 등을 들 수 있다.⁵⁾

우리나라의 기몽시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그 연원을 찾고,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다루지 못하였으니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을 소재로 하고 있는 記夢詩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월영⁶⁾은 “기몽시는 꿈을 꾸고 깬 후 그 꿈의 인상·충격·의미를 잡아두기 위해 지은, 꿈을 소재로 한 시로, 제명을 일단 「기몽(記夢)」으로 삼은 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치수⁷⁾는 “이른바 ‘夢’시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하나는 시 속에 단순히 ‘夢’이라는 글자를 사용한 시로, 다른 하나는 구체적으로 꿈의 내용을 기술한 시로 구분 짓고 있다. 유기혜는 詩題에 ‘夢’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詩句에 ‘夢’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나누어서 기몽시를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의 정의를 수용하면서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몽시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자 한다. 곧 단순히 시 속에 꿈(夢)을 소재로 사용한 시는 연구 범주에서 배제하고,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되, 시제가 「記夢」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記夢(꿈을 기술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시들은 모두 기몽시 범주 속에 넣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5) 劉奇慧, 위의 논문, pp.8-11. 번역·정리하여 인용.

6) 이월영, 「기몽시(記夢詩) 연구」, 『語文研究』 52, 語文研究學會, 2006. p.123.

7) 이치수, 「陸遊詩研究」, 國立臺灣大學, 1990. p.183. “所謂夢詩可分爲二類. 一類是在詩中使用‘夢’字的詩, 這一類詩大致不包括作夢的具體內容. 另一類詩記述夢的內容. …… 這兩類雖同名, 但其意義則不同.”

Ⅲ. 記夢詩 分類

공자가 怪力亂神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듯이⁸⁾ 유가적 입장에서 怪異·勇力·悖亂·鬼神의 일은 언급하기를 피하는 주제 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先人들의 문학 작품 안에는 궤이하면서도 인간의 이성적 범위를 벗어나는 주제인 꿈에 대한 이야기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선비 등 지식인들의 의식세계 자체가 성현의 말씀이나 文以載道的인 입장에서 수신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꿈을 믿는 것은 허황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⁹⁾ 己卯士林의 기몽시는 이러한 사유기반을 가지고 있는 문인들의 시작품 속에 산견되고 있는 기몽시이기에 더욱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기몽시 창작은 정치적 억압 속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표출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免責할 수 있기 위해서 꿈·이성의 영역 밖의 장치-이라는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니, 이러한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당시 사람과 문인들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기묘사림들의 꿈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분석하여 그들의 의식 세계를 1. 出仕에의 의지 표출· 2.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3. 至親에 대한 그리움· 4. 절망적 상황에서의 신세 한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出仕에의 의지 표출에서는 비록 정치적으로 실세하였으나, 다시 중앙 정계로 나아가서 이상적 정치관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는 운신의 폭이 좁은 사림들이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당대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3. 至親에 대한 그리움에서는 기묘사화로 인하여 유배된 어려움 속에서 가족·친지에 대한 그리움을

8) 『論語』, 「述而」 “子不語怪力亂神.”

9) 홍순래, 『꿈으로 본 역사』, 중앙books, 2007, p.207. 참조하여 정리.

드러내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다. 4. 절망적 상황에서의 신세 한탄에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탄식과 울분이 드러나 있는 시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시작품 분석을 통해서 당시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속마음 표출이 쉽지 않았을 이들의 의식 底面의 일단을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1. 出仕에의 의지 표출

관료생활을 지향하는 出과 벼슬살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원생활을 지향하는 處리는 두 가지 삶의 양식은 당시 문인들에게 보편적으로 공존해 있는 것이었다. 이 양자 사이의 갈등은 관직에 있을 때는 處에 대한 회구로, 전원생활을 하면서는 出에 대한 의지로 나타난다. 당시 기묘사화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賜死되거나, 絶島로 유배되고, 온건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도 파직되었다. 사사되거나 유배된 사람들의 시작품 속에서는 출사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그들이 정치에 뜻이 없었다고 보기 보다는 현실적인 여건이 그들에게 출사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묘사화 이후 사람과의 주요 인물은 김안국, 김정국 형제였다. 이들 형제는 조광조, 김정 등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책의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조광조 등이 보여준 비타협적 강경론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¹⁰⁾ 곧, 전통적인 인습과 舊制의 革去 노력은 급진적 성격의 조광조 계열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성리학 적 윤리질서·통치질서의 수립을 꾀하려는 노력은 실용주의적 성향을 띤 김안국 계열의 온건파 인물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이다.¹¹⁾ 이러한 개혁 입장의 차이로 인해, 급진적 개혁을 추구했던 조광조 일파는 극형에 처해졌던 것에 반해 온건적 개혁을 추구했던 김안국 일파는 파직의 징

10) 우응순, 앞의 논문, p.120.

11) 李秉杰,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 一潮閣, 1984. pp.167-168.

계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향촌으로 파직된 사림들은 향촌에서 교육을 통한 제자 양성을 하면서 정계 진출을 꾀하게 된다. 그러한 마음을 ‘꿈’이라는 기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서 金安國의 시 작품 두 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白髮孤臣抱百憂	백발의 외론 신하는 온갖 시름 지녔는데
海天風雪滿征裘	바다 마을 눈보라는 객의 옷에 가득하네
分明記得前宵夢	어제 밤의 꿈 속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니
丹陛從容侍冕旒	대궐 층계서 임금님 조용하게 모셨다네 ¹²⁾

이 시는 작자가 扶安에서 자면서 꾸는 꿈의 내용을 기술한 시이다.

기·승구에서는 작자의 고달픈 신세를 표현하였다. 백발의 고뇌 많은 시 속 화자는 바다 끝과 눈보라 속이라는 공간적·시간적 극한 속에 홀로 놓여져 있다. 그로 인해 전·결구에서는 작자가 평소에 희망했던 공간을 꿈꾸게 되는 것이니, 대궐에서 임금님을 편안하게 시중들고 싶어 하는 작자의 열망이 드러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시가 시인의 평소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범범하게 표출해 낸 시라고 한다면, 다음 시에서는 이러한 마음이 한층 강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聖恩終亦到窮村	임금 은혜 마침내는 궁벽 마을 이르러서
日午慵眠尙掩門	한낮이 다되도록 문 걸은 채 잠만 잤네
夢裏不知身遠外	꿈 속에 나도 모르게 멀리까지 갔었는데
正隨鵷鷺望龍雲	봉황 백로 따라 서서 용구름 바라봤네 ¹³⁾

기·승구에서는 죽지 않고 궁벽한 마을에 이르러 잠잘 수 있는 상황을 ‘임금 은혜[聖恩]’라고 표현하면서도, 한낮이 다되도록 잠만 자고 있

12) 金安國, 『慕齋先生集』卷2, 『韓國文集叢刊』20, p.35. 「扶安에서 자다. 宿扶安」
 13) 金安國, 『慕齋先生集』卷2, p.35. 「祖遇 스님의韻을 따라 짓다. 次祖遇上人韻」九首

다는 표현을 통해 무기력한 시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 『慕齋集』 소재 시에는 臥·夢·眠·睡 등 잠자는 행위를 나타내는 시어들이 많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오늘 비엔 아무도 찾는 이 없어 외로운 방에서 낮잠 길었네 今雨無人訪 孤齋午夢長”¹⁴⁾, “동산의 곳곳에선 꽃구경 자리 열리는데 나홀로 떠집에서 종일토록 잠 잤다오 園林處處看花會 獨臥茅齋盡日眠”¹⁵⁾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주로 그의 파직한 이후의 시들에서 나타나는데, 타의에 의해 격리되고 운신할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황을 일상생활 속 무기력함으로 표현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결구에서는 외롭고 막혀 있는 신세라서 궁벽한 향촌에서 낮 되도록 잠만 자던 시인이 꿈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願望의 공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다. 곧, ‘봉황 백로 따라 서서 용구름 바라봤도다[正隨鸞鷲望龍雲]’라는 시구를 통해서 백관 사이에 함께 늘어서서 임금을 보필하고 싶어 하는 시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 이를 통해 기·승구의 무기력함은 결국 출사하여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지만 때를 만나지 못한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2.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16C 기묘사림들은 ‘꿈’이라는 특수 상황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의 뜻을 은근히 내비치기도 하고 있다. 이는 당시 민감한 정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울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꿈’이라는 탈이성적인 공간의 설정을 통해, 자신도 꿈에서 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이 자신의 생각은 아니라는 免

14) 金安國, 『慕齋先生集』 卷2, p.41. 「李子賀가 빗 속에 안부를 묻은 것에 답하다. 答李子賀雨中問訊」

15) 金安國, 『慕齋先生集』 卷4, p.72. 「進士 成聃齡에게 답하다. 答成進士聃齡」

責의 장치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奇遵의 시작품으로, 시제를 통해서 작시의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늦겨울에 온 밤을 생각에 잠겼다. 꿈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글 몇 편을 주었는데, 곧 시와 문장으로, 모두 내가 지어서 쓴 것들이었다. 눈으로 살펴보다가 잠에서 깨었는데 그 중 하나도 기억해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기를 오래 하였다. 얼마 안 되어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그 책을 얻었다. 글 하나를 가져다가 읽었는데, 나머지는 역시 살펴보지 못했다. 그 글에 이르기를¹⁶⁾

八表同昏兮	온 세계가 온통 어두움이여
平陸杳冥	평평한 육지가 어둔 바다 되었다.
天之何爲兮	하늘은 무엇 때문인가
使我遭此時而困厥生	내게 이런 때 만나게 하여 내 삶을 곤란케하네
道留不解兮	도리를 남겨놔자 이해하지 못함이여
歲流莫停	시간은 흘러가서 멈추지를 앓는구나
茫茫宇宙兮	아득하고도 아득한 우주여.
誰與儀刑	누구를 본보기로 삼을꺼나.
江之沄沄兮	강물이 소용돌이 칩이여.
桑鳩之鳴	뽕열매[오디] 먹은 산비둘기 울어대누나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 『德陽遺稿』 권2는 己卯士禍에 연루되어 牙山과 穩城謫所 및 獄中에서 지은 작품들이 주로 수록¹⁷⁾되어 있으니, 기준이 정치적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지은 시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시제를 통해서 이 시가 꿈속에서 얻은 것일 뿐이지, 작자가 의도를 갖고 쓴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적 장치를 통해서 시적 내용에 대한 책임을

16) 奇遵, 『德陽遺稿』 권2, 『韓國文集叢刊』 25, p.311. 「季冬念一夜, 夢有人與我草藹數通, 乃詩文辭, 皆予之所作而書者. 閱眼即覺, 不得記其一, 嗟嘆者久之. 既而又寐, 又得其藹, 取一辭讀之, 餘又未省, 其辭曰」

17) 『韓國文集叢刊 解題』, 민족문화추진회.

어느 정도 피하고자 하는 심사가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1·2구는 陶潛 「停雲」시의 “八表同昏, 平陸成江”에서 용사한 것으로, 온 세계가 온통 혼돈상태여서 평평한 육지마저도 바다로 변해버리는 현실을 언급하고 있다. 3·4구에서는 하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나를 내어서 곤란함 속에 빠뜨렸을까 하며 원망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5·6구에서는 하늘이 나를 이 혼란한 시기에 태어나게 함은 나에게 至治의 도를 펴라고 해서일 터인데, 이러한 도는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암울하게 시간만 흘러가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7·8구에서는 온 세상이 혼탁하여 법식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 9·10구에서는 『詩經』, 「衛風·氓」 “于嗟鳩兮, 無食桑葚”을 용사하였는데, 朱熹는 그 주석에서 “鳩는 송골매이다. 산참새와 비슷하나 작고, 꼬리가 짧으며, 흑청색이고 소리를 많이 낸다. 葚은 뽕나무 열매이다. 송골매가 오디를 많이 먹으면 취하게 된다.”¹⁸⁾라고 하였으니, 강물은 소용돌이치고, 산비둘기는 취해서 울어대는 모습을 통해 혼탁한 세상을 다시 한 번 묘사해 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 현실에 대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웠을 당시 상황 속에서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답답한 심사를 마음껏 표출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억눌린 의식 세계의 강도가 어느 만감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다음은 김안국의 작품이다.

取彼九畹香	저 九畹의 향초를 캐다가
種我堂前幽	내 집 앞 으스스한 곳에 심었도다
和風日日吹	온화한 바람은 날마다 불어 주고
雨露滋不休	빗방울도 쉬지 않고 적셔 주었네
護養豈不勤	보살핌을 어찌 게을리 했겠나

18) 『詩經』, 「衛風·氓」 朱子 註. “鳩, 鶻鳩也, 似山雀而小, 短尾, 青黑色, 多聲. 葚, 桑實也, 鳩食葚多則致醉.”

晨漑夕土抔	새벽에 물주고 저녁엔 흙 떠주고
待之欲紉佩	자라면 끈달아 차보려 했으니
此意誠縹緲	이 뜻은 참으로 간절하였네
孤蘭不自茂	외로운 난초는 자라지도 못했는데
衆草共齊抽	잡풀은 덩달아 빨리도 컸네
草蔓蘭漸悴	넝쿨진 풀 때문에 난초 시들고
日月忽如流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도다
嚴霜既已降	된서리 이윽고 내리고나서
美惡腐一秋	美惡이 한 번에 썩어버렸네
倚杖對立久	막대 짚고 오래도록 서서 보자니
我思良悠悠	내 생각 참으로 아득하도다 ¹⁹⁾

이 시는 그 작시 배경이 夾註로 달려 있다.

꿈에 司馬의 會試가 있었는데, 글제가 ‘草蔓’이었다. 꿈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희미하여 서너 구만 기억할 수 있었다. 깨고 나서 그것을 이어보았다.

夢司馬會試, 出題曰草蔓. 夢中作詩, 依稀記三四句. 覺而續之.

시의 내용이 공격을 받을 요소가 크므로, 이것은 꿈에서 지은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夾註를 달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의 ‘향초’는 시인 자신, 또는 뜻을 함께 하고 있는 정치 집단, 또는 시인 자신의 신념 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잡풀[衆草]’과 ‘된서리[嚴霜]’ 등은 자신들을 희생 시킨 훈과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된서리에 좋은 것과 악한 것이 모두 뒤섞여서 썩어 버렸다고 하고 있으니, 시인의 강도 높은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꿈 속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드러낼 수 없었을 속마음이기엔 그 비판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이다.

19) 金安國, 『慕齋先生集』 卷4, p.82. 「풀넝쿨 草蔓」

3. 至親에 대한 그리움

꿈이라는 것은 깨어있을 당시에 간절히 생각하던 것이 형상화되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깨어있을 때의 회구가 꿈 속에서 실현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論語』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심하다!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 꿈에서 주공을 뵈지 못한 것이”²⁰⁾

라고 하였고, 朱熹의 주석에

공자가 왕성할 때에는 뜻이 주공의 도를 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도 간혹 그(주공)를 뵈었다. 그가 늙었는데도 (도가) 행해지지 못하자 다시는 이러한 마음이 없게 되었고, 또한 다시는 이러한 꿈도 꾸지 않게 되었다. 이 때문에 스스로 그의 노쇠함이 심함을 탄식한 것이다.²¹⁾

라고 하였다. 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간절히 희망하는 대상 및 사실은 종종 꿈을 통해서 형상화되어 드러난다.

기묘사림들은 대개 이들의 나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사화를 당하여 파직되거나 귀양 가게 되었다.²²⁾ 이러한 이들이 부모 봉양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것임은 자명하다. 실제로 金淨은 錦山에 유배되었을 때, 모친이 병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군수 鄭態에게 요청하여 모친을 문병한 것이 발각되어 망명하려 했다는 시비로 번져서 우여곡절 끝에 杖一百의 유배형으로 제주도 에 위리안치 되었다.²³⁾ 또 金絳은 유배 중 부

20) 『論語』 「述而」. “子曰, 甚矣吾衰也! 久矣吾不復夢見周公.”

21) 『論語』 「述而」, 朱子 注. “孔子盛時, 志欲行周公之道, 故夢寐之間, 如或見之. 至其老而不能行也, 則無復是心, 而亦無復是夢矣, 故因此而自歎其衰之甚也.”

22) 기묘사화 당시 이들의 나이는 趙光祖(38), 金淨(34), 奇遵(28), 韓忠(34), 金湜(38)이었다.

모가 모두 죽음으로 인하여 그도 병을 얻어서 죽었다. 젊은 나이에 봉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絶島에서 지내야 하는, 세상의 말이 두려워서 서신의 왕래조차 쉽지 않았을 이들에게 있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가족을 보고파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들의 꿈의 세계 속에 투영되어 있다.

다음은 기준의 시 작품 하나를 본다.

꿈 속에서 남산 아래에 집을 빌려서 부모·자식·형제가 모두 함께 살았으니, 화려하기가 지난날과 같았다. 깨어서 생각하고는 시를 지어서 기록해둔다.

夢中, 借家南山下, 母子兄弟皆同居, 和樂如平昔. 覺而思之, 爲詩以記.

終南山下借人家	중남산 아래다가 인가를 빌려 사니
松裏茅茨近紫霞	솔 숲 사이 띠로 인 집 신선궁과 흡사하네.
羸婦每憂甘旨薄	아윈 아내 맛난 음식 부족한 걸 걱정하고
慈親常喜子孫和	인자한 부모 자손들 화목한 걸 기뻐하네.
窓臨碧水桃花落	창밖에 푸른 물엔 복숭아 꽃 떨어지고
門對青峯春日斜	문 마주한 푸른 산엔 봄날 햇살 비껴드네
向晚更思廚供闕	저물녘에 부엌 음식 떨어졌음 생각나서
雲中獨去躡薇芽	구름 속에 홀로 가서 고사리를 따는구나 ²⁴⁾

가족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는 작품이다. 가난하더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지난 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시인의 간절한 바람이 드러나 있다.

首聯에서는 중남산 아래에 집 한 칸 얻어 사는데, 숲 사이에 들어선 초라한 띠집이지만 시인에게는 신선궁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외관은 화려하지 못하지만 가족끼리의 따스한 사랑이 배어 있는 집이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다. 頷聯에서는 가족 상호간의 배려심이 드러

23)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18.

24) 奇遵, 『德陽遺稿』 권2, p.312.

나 있는 대목이다. 가난하여 야윈 아내는 늘상 부모 봉양할 맛있는 음식이 부족한 것만을 걱정하고, 반면에 인자한 부모는 물질적 봉양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늘 자식들이 서로 화목한 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 頸聯은 집 주위의 풍경에 대한 묘사이다. 집 앞의 시냇물에는 복숭아 꽃 잎이 떠내려가고, 푸른 산에는 봄날 햇살 완연하다고 하여 화자의 집을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으로, 따스한 봄기운이 감싸고 있는 훈훈한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 尾聯에서 표현하고 있는 저녁 반찬을 마련하기 위해 고사리를 따는 작자의 모습에서는 가난함을 비판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여유 있고 평화스러워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풍경은 현실 세계와 동떨어진 환상의 이상향을 그린 것이 아니다. 시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풍경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자의 지난날[平昔]이었던 현실이었다. 갑작스러운 사회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은 지금, 예전 조출했던 삶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꿈 속에서나 찾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삼아야 하는 작자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지난날로 회귀하고자함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드러내 보여준다.

사회로 인해서 同志들이 뿔뿔히 흩어지고, 그 중 중죄를 입은 사람들은 유배를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평소에 함께 뜻을 나누었던 親友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은 한결 더하였다.

다음은 韓忠의 작품이다.

한 겨울에 붙잡혀서 옥에 있는데, 꿈에 김정의 편지를 얻었다. 편지에는 30여 운으로 된 오언고시가 있었고, 편지 끝에는 또 4자로 된 한 구절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 시는 모두 잊어버려 살필 수가 없었다. 단지 그 네 자에 이르기를

仲冬, 拿獄, 夢得元冲金冲菴字簡. 簡有五字古風三十餘韻, 紙尾又有四字一句. 及覺, 詩皆忘了未省, 但其四字曰,

滄海爲主 큰 바다를 주인 삼았는데
亂峯停期 어지러운 봉우리 기약을 방해한다²⁵⁾

이 시는 수록된 次第로 보아 己卯(1519)년에 지어진 시임을 알 수 있다. 사회로 인해서 감옥에 있으면서, 같은 처지에 있을 김정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큰 바다를 주인으로 삼았는데, 어지러운 봉우리들이 기약을 방해한다는 내용에서 현명한 군주를 모시고 至治를 꿈꾸는 사람들이건만 간신배들의 방해 때문에 임금에게 마음으로 기약했던 것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이러한 마음을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꿈 속에서 우연하게 얻은 시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親友인 김정에 대한 마음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 날 꿈에 또 시 두 구를 얻었다. 내가 먼저 지어 이르기를
翌日夢, 又得詩兩句, 吾先唱曰,

百年秦嶺淚 백년토록 서쪽 재서 눈물 흘리고
千里楚天風 천리너머 남쪽하늘 바람부는 곳

김정이 화답하여 이르기를
元沖和曰

寥落餘崖在 허허막막 낭떠러지만 남아서
緣溪渡煙霧 시내 따라 물안개를 건너서 가네

몇 일이 지나 죄가 결정되어 김정은 진도로 유배되니, 진도는 과연 버려진 물가이다. 나 또한 거제로 유배가니 그 느껴움을 없앨 수가 없다.

過數日決罪, 元沖配珍島, 而珍島果有餘崖. 吾亦配巨濟, 其感應不可誣也.²⁶⁾

이 시는 후미에 “여기까지는 선생의 유배시의 일기이다. 以上先生流竄時日記”라고 기록되어 있고, 협주를 통해서도 이 시가 지어진 시기가 김정과 한충이 각각 진도와 거제로 유배되었던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먼

25) 韓忠, 『松齋先生文集』 권1, 「遺事」, 『韓國文集叢刊』 23, p.519.

26) 韓忠, 『松齋先生文集』 권1, 「遺事」, p.519.

저 기록된 한층이 지은 시를 통해서 서쪽 진도로 유배된 김정희의 안타까운 눈물과, 남쪽 거제로 유배된 한층의 허망한 마음을 읽을 수 있다. 김정희가 화답한 시에서는 인적이 끊어진 낭떠러지만 즐비한 絶島를 향해서 끝없는 바다를 건너가는 암담한 신세를 읊고 있는 것이다. 수십 명의 사림들이 유배되고 파직되던 정치적 파란 속에서 기몽시라는 형식을 빌려 김정을 만나 앞날을 예감했다는 내용의 시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김정희에 대한 은근한 그리움과 상황에 대한 울분을 함께 내비치고 있다.

4. 절망적 상황에의 신세 한탄

기묘사림들은 한창 정치적 역량을 펼 수 있는 나이에, 그들의 급진적인 개혁 노력으로 인하여 기득세력에게 미움을 사서 갑작스럽게 정치적 실각을 하였다. 억울한 무고로 인하여 삶의 한 치 앞도 설계할 수 없게 된 이들의 착잡한 심정은 記夢詩라는 형식을 통하여 그들의 문집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기묘의 꿈을 기록한[記夢] 시를 살펴본다.

東園桃李雨中春	동쪽 동산 도리꽃은 빗 속 봄 알리는데
葉葉風光總慰人	잎마다 비치는 빛 모두 사람 위로한다.
病婦攬衣論舊別	병든 부인 옷을 잡고 오랜 이별 얘기하고
老婢持飯說家貧	늙은 노비 밥 차리며 집안 가난 말한다네
滿庭寒草行成路	뜰 가득한 시든 풀은 이리저리 길 만들고
半架殘書手拭塵	반쪽 책장 남은 책들 손 문질러 먼지 닦네
墻下小田新種菜	담장 아래 작은 밭에 새로 나물 심었다가
賣來生業奉孤親	일삼아 팔아 와서 외론 부모 봉양하네 ²⁷⁾

어려운 현실 상황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다.

首聯에서 묘사하고 있는 봄 풍경을 통해 작자가 처한 차갑고 냉엄한

27) 奇遵, 『德陽遺稿』 권3, p.323. 「꿈을 기록하다. 記夢」

현실을 더욱 극대화 하여 드러내고 있다. 동쪽 동산에는 복숭아꽃 오얏꽃 피어 한창 봄임을 알리고, 잎마다 반사하는 빛들은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할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화창한 계절적 배경 속에 놓인 작자의 마음은 여유롭지 못하다. 額聯에서는 집에서 홀로 남은 부인은 옷을 부여잡으며 유배되어 간 남편 이야기에 목이 메일테고, 늙은 노비는 가난에 끼니 이을 걱정 하소연 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의 정서가 진하게 배어 나온다. 頸聯의 집의 공간적 묘사는 額聯의 암울한 상황을 가중시킨다.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뜰에는 시들어 버린 풀들만 이리저리 길을 내고 있고, 주인 잃은 책장의 책들에는 먼지만 쌓여간다고 하여 생기 없고, 희망 없는 집안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尾聯에서는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부모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담장 아래 작은 밭에다가 나물이라도 심어서, 어떻게든 팔아서 자식 잃은 부모를 봉양한다고 하는 언급 속에 작자의 효심과 부모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金淨의 「꿈에 夢」라는 시를 한 편 보기로 한다.

溟浪千重隔	바다물결 천겹으로 막아섰으니
蓬山一夢傳	봉래산은 한꿈 속서 찾아볼밖에
思君不可見	임금님 그리나 뵈 수 없으니
知我者其天	날 알아 주는 이 하늘이리라 ²⁸⁾

이 시가 수록되어 있는 「海島錄」은 김정희의 珍島 유배시에 지은 작품들만 모아 놓은 것으로, 당시 그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起·承句에서 외딴 섬 진도에서 눈 앞에 보이는 것은 끝도 없는 바다 뿐이니,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은 한 꿈 속에서나 찾아볼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작자의 좌절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轉·

28) 金淨, 『冲庵先生集』 권3, 「海島錄」, 『韓國文集叢刊』 23, p.164. 「꿈에 夢」

結句에서는 자신의 충정은 임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건만 현실은 자신의 충심을 알아주지 않으니, 하늘만은 날 알아줄 것이라고 하여 답답한 자신의 심사를 표출하고 있다. 자신의 충심을 왜곡하는 당시 사회를 향하여 공평무사한 하늘만은 나를 제대로 알아봐 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같은 詩題로 지은 기준의 시이다.

三月十二夜	3월 12일 밤이었는데
有夢太非祥	너무나 안 좋은 꿈을 꾸었네
覺來尙駭愕	깨서도 여전히 놀란 채여서
寒粟如繁霜	떨기를 뒤서리 맞은 듯 했네
思之不解兆	생각해도 조짐을 해몽 못하니
心緒空惛茫	마음만 괜시리 허탈했도다
平生所經驗	평소에 해왔던 경험들은
往往可相方	이따금 도와주는 방법 되는데
今年已衰情	올해는 벌써부터 게을러져서
志慮多不常	생각도 여러번 좇대가 없네
或恐偶然作	어쩌면 뜻없이 꾸 꿈이라서
吉凶非所詳	길흉이 분명치 않은 것이리
悠悠垂死中	오래도록 죽음을 코앞에 두니
萬事誰更量	만사를 그 누가 헤아리겠나
畢竟有天在	끝내는 하늘에 있게 되리니
願勿長嗟傷	오래도록 근심하게 하지마소서 ²⁹⁾

김정의 앞 시보다 한 층 더 강하게 신세한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재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4구에서는 3월 12일 밤에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깨었는데, 그 잔상이 얼마나 강하던지 잠이 깬 후에도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 전반의 내용을 보아서 시인이 꾸 꿈은 아마도 자신의 죽음을

29) 奇遵, 『德陽遺稿』 권3, p.320. 「꿈에 夢」

예견하는 듯한 꿈이었던 듯하다. 5-6구에서는 이것의 조짐을 헤아려 보려고 하나, 명확하지는 않아서 오히려 심난한 기분을 드러내고 있다. 7-10구에서는 평소에 경험을 통해 지닌 신념들은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인데 올해는 웬일인지 아직 3월인데도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는 것이다. 11구-12구는 꿈이라는 것은 의도 없이 꾸어지는 것이니, 길함과 흉함을 사람의 힘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마지막 13구-16구에서는 오래도록 죽음의 문턱에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는데, 내일의 일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다 죽게 되어 있으니, 오래도록 마음을 줄이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면 시인은 이 시를 지을 때에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 시를 통해서 하루하루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견뎌야 하는 시인의 암담한 상황을 볼 수 있으며, 오래도록 근심하게 하지 말아 달라는 작자의 애절하면서도 체념 섞인 독백에서 당시 사람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뇌를 짐작할 수 있다.

IV. 結論

‘記夢詩’의 범주는 그 개념을 廣義로 볼 것이냐, 狹義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단순히 ‘꿈[夢]’이라는 시어를 소재로 삼은 시들도 다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시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해 전자에 해당하는 시작품은 분석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記夢詩에 대한 협의의 개념을 채택하여 해당 시작품들을 분석해 내었다.

본고에서는 16C 己卯士林의 記夢詩 작품을 크게 四分하여 살펴보았다. 1. 出仕에의 의지 표출, 2.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실천적 유학자로서의 사림파들의 의식, 곧 아직 바른 정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있지 않은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3. 至親에 대한 그리움, 4. 절망적 상황에의 신세 한탄에서는 이들의 개인의 감정, 정서의 표출 양상을 볼 수 있었으니, 이를 통해 당시 정치적 갈등 속에 희생당했던 사림과 문인들은 자신들의 한탄스런 심사를 기몽시라는 형식을 빌려서 은근하게 표현해 내었음을 알 수 있었다.

16C 기묘사립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시에 그들에게 반감을 품고 있는 세력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자신의 답답한 심사를 표현하면서도 어느 정도 免避할 수 있는 시적 장치가 필요했을 것이니, 그것이 ‘꿈’이라는 장치의 설정이었다. 이들이 실제로 꿈을 꾸었는지, 아니면 꿈에 가탁하여 시를 쓴 것인지는 파악할 방법이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記夢詩를 통해서 당시 사립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記夢詩의 분석은 기묘사화 후 개인 작품의 산일과 그들의 짧은 생애로 인하여 그들 의식의 내면을 고찰할 방법이 적은 당시 사람 문인들이 유배기의 심리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형식면으로도 이들이 지었던 記夢詩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조선조에는 제법 많은 기몽시들이 쓰여지게 되었다. 이월영은 그의 논문에서 『한국문집총간』에 수록되어 있는 「記夢」을 題名으로 하고 있는 시들만 110수라고 언급하고 있다.³⁰⁾ 이들은 대부분 16C 후반~17C에 걸쳐 있는 작가들인데 대표적으로 芝峯 李晬光(1563~1628), 石洲 權鐸(1569~1612), 葵窓 李健(1614~1662), 星湖 李瀾(1681~1763)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기몽시는 다양한 주제와 형태를 가지고 창작되었는데, 李晬光은 ‘꿈 속의 선계를 유람한 시[夢中遊仙詩]’를 집중적으로 지었으며, 權鐸과 李健은 다양한 소재의 꿈을 시적 대상으로 하였으니, 기몽시의 양상도

30) 이월영, 위의 논문, p.123. 註 참조.

좀 더 다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C 기묘사림들의 記夢詩 창작이 이들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까지 말하기는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나, 16C 후반의 다양한 형태의 기묘시 창작의 흐름에 일정 정도의 기여도는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고는 시작품의 분석 대상을 일부 기묘사림의 작품에 국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記夢詩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식세계의 일단면을 엿보는 데에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추후 이 시기 개별 작가들의 시작품 분석 과정에서 더 많은 기묘시 작품들을 보완하여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參考 文獻>

- 奇 遵, 『德陽遺稿』, 『韓國文集叢刊』 25, 민족문화추진회.
 金安國, 『慕齋先生集』, 『韓國文集叢刊』 20, 민족문화추진회.
 金 淨, 『冲庵先生集』, 『韓國文集叢刊』 23, 민족문화추진회.
 韓 忠, 『松齋先生文集』, 『韓國文集叢刊』 23, 민족문화추진회.
 『韓國文集叢刊 解題』, 민족문화추진회.
 『論語』, 學民文化社, 1990.
 『詩經』, 『漢文大系』, 新文豐出版公司, 中華民國85年.
 『周禮注疏』, 『十三經注疏 整理本』8, 北京大學出版社.
- 康性能,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金南馨, 「星湖 李瀼의 記夢詩에 대하여」, 『語文論集』27,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7.
 金大淵, 「石洲詩 研究」,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漢文教育研究』 27, 韓國漢文教育學會, 2006.
 우응순, 「16세기 畿湖士林派의 형성과 그 문학적 지향」, 『韓國漢文學研究』

- 31집, 한국한문학회, 2002.
- 李秉休, 『朝鮮前期 畿湖士林派 研究』, 一潮閣, 1984.
- 이월영, 「기몽시(記夢詩) 연구」, 『語文研究』 52, 語文研究學會, 2006.
- 鄭 燾, 「芝峯 李晬光의 漢詩 研究」, 전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朱基平, 「육유시가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車溶柱, 「꿈의 源泉的 形成에 대한 觀念」, 『語文論集』 19, 고려대 국어국문학 연구회, 1977.
- 홍순래, 「韓國 記夢詩의 展開樣相 研究 -夢中作을 중심으로-」,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 『꿈으로 본 역사』, 중앙books, 2007.
- 劉奇慧, 「陸游紀夢詩研究」, 國立臺灣師範大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치수, 「陸遊詩研究」, 國立臺灣大學, 1990.

Abstract

*Research for the sixteenth-century KIMONGSI(記夢詩) of
KIMYOSARIM(己卯士林) / Son Yoo Kyung**

1506 was the time of political confusion owing to the feud of hoongu-pa (勳舊派) and sarim-pa(士林派), which is also the time of sixteenth-century starting from jungjongbanjoeng(中宗反正). This political situation of sharp conflict caused that many sarim-pa men of letters were sacrificed from KIMYOSAWHA(己卯士禍). And people who were sacrificed at that time are called KIMYOSARIM(己卯士林).

This manuscript is the analysis of KIMONGSI(記夢詩) of the sixteenth-century KIMYOSARIM(己卯士林) as one of work, which is based on the large purpose of research to investigate and consider their consciousness through the analysis of an individual work about sarim men of letters at that time.

‘In the chapter of the origin and the definition of KIMONGSI(記夢詩)’ the origin of KIMONGSI(記夢詩) has been organized, and through this, the general idea has been abstracted and organized.

‘In the chapter of the classification of KIMONGSI(記夢詩)’ it has been classified and analyzed by four topics, which are the will expression of KIMONGSI(記夢詩) of the sixteenth-century KIMYOSARIM(己卯士林), the criticism of political actuality, the yearning of friends and the lamentation of hopeless circumstances.

This analysis of KIMONGSI(記夢詩) has a meaning that we can see the mental state of sarim men of letters in the period of exile, even though it is hard to consider their inner world owing to their short life and the dispersion

* Lecturer of Sungshin Women's Univ. / curator98@hanmail.net

of an individual work, and is supposed to be required work to find out that their KIMONGSI(記夢詩) contributed to create various types of KIMONGSI(記夢詩) partly for the later sixteenth-century.

【Key words】 sixteenth-century, KIMONGSI(記夢詩), KIMYOSARIM(己卯士林), dream

투고일 : 5월 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3일